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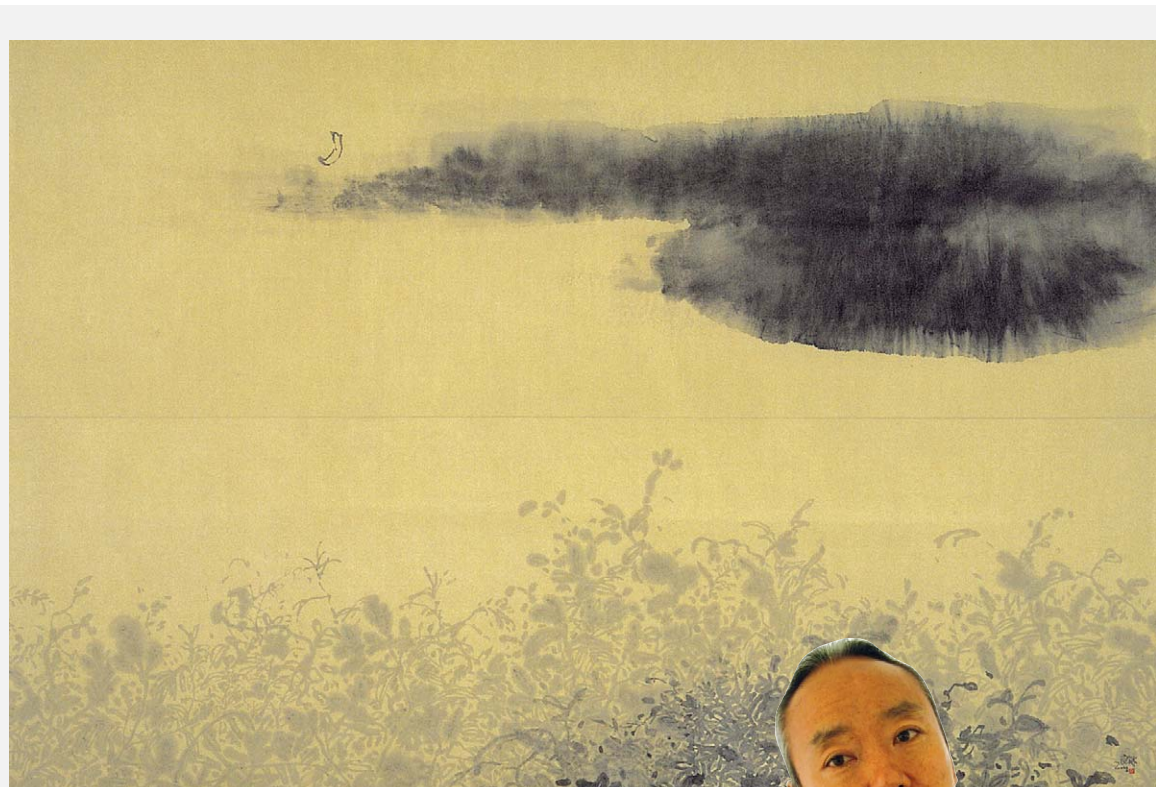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기를...’

성영록 개인展, 서울 종로 갤러리 현

‘꽃이 시들기 전 그 모습을 어찌 바라보나요?’
고요하고 잔잔한 물결 위에 밝은 빛을 내는 금과 은분으로 수놓은 성영록 작가의 ‘장무상방(長母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기를’展이 12월 1~31일 서울 종로 갤러리 현에서 선보인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다양한 화면경영으로 나타나 감상자의 미적 감성을 자극한다. 헤어집의 아쉬움에 대해 ‘시간

이 흐른 후 너와 나는 새로운 꽃을 사다 다시 이곳에 두겠노라고 그 땀 아마도 너를 충분히 잊고 난 후 새로운 누군가에게 조금의 마음을 여는 순간이 아닐까’라며 읊조린다. 헤어질뻔 먹비로 가득했던 모우(暮雨)와 잔잔하고 푸른 물결 위에서 흩날리듯 서성이는 화가는 설레임과 이별을 화폭에 공존하며 기억의 여운으로 담아낸다. (02)722-0701

가연숙 기자



김양수 작 '바람도 다녀가는 이 고요'

갤러리 이즈에서 만난 화가 김양수

우리 서로 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백 화선지 위로 먹의 여백이 스민다.

바람을 닮은 화가 김양수는 ‘풀숲이 나를 응시한다. 내가 풀숲을 응시한다. 우리 서로 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오랜만에 대중 앞에 다가왔다. 11월 19~25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15번째 개인전을 연 김 화백은 ‘숲’을 소재로 7여 년 동안 답답한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 속 단상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는 “김 화백은 고흐처럼 해바라기를 그릴 수 없다. 태양이 아닌 달의 천성을 지닌 이유다. 달빛에 세상을 관조하는 평안한 휴식이 그의 그림에 담겨있다”며 그의 그림세계를 칭송했다. 영화배우 강수연은 “그의 글과 그림이 뭔가 그림과 외롭다는 단어를 연상하게 만든다”며 “그의 그림을 통해 아름다운 영화의 상상력을 제공 받는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극단적인 생각, 팽배한 도전이 펼쳐지는 경성의 현실 속에서 고요한 달의 정서를 너그럽이 선물하고 있었다.

실제 그의 그림은 인공조명이 아닌 촛불을 배경으로 깊어지는 생각을 음미하며 즐기기에 좋은 배경이 된다. 달빛 아래서 바라본 운치 있는 세상이 더욱 평온한 것처럼 그의 그림 속 관조하는 일상 풍경들은 문득문득 심상이 됐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잡자리, 고양이, 물고기들이 작가 자신과 지극히 닮았다고 여겨졌다.

작품 ‘바람도 다녀가는 이 고요’를 바라보노라면 그가 그림에 담고자 했던 고요한 바람이 자화상으로 비춰진다. 늘 가까이서 숲을 바라보며 인 땅을 뚫고 나온 새싹, 정열적인 여름,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을 속에서 경이감과 넉넉함을 발견한다고 말하는 김양수 화백. 시기 질투 없이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에서 여는 인간과 차별된 그 무엇을 느낀다고 전한다. ‘숲’은 그에게 ‘깨어있음’인 것이다. 마음이 들떠있는 세상에서 그의 그림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잔잔한 물결처럼 조연하다. 그의 말마따나 내면의 세계로 천착해 들어가 곰삭혀 묵은 맛을 미술로 구현하고자 하는 생명력이 그로 하여금 붓끝에서 자유롭게 하는 듯했다.

일류 김양수 화백은 경기도 안성 동막골 적멸산방(寂拈山房)에서 생의 고요를 서정적인 그림에 담아 <내 속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는 이름의 책도 펴냈다. 그의 시 가운데 ‘외로움’을 보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도 없다. 내가 저 길을 따라 나서지 못함은 저 길을 따라 걸어들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음이다. 가지 위에 잠시 한 마리 머물다 간다’며 자연과 가장 닮은 모습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허히 돌이킨다. 53점의 그림과 함께 실린 105편의 글은 문득 바라본 가을 하늘, 가슴 시리도록 푸른 마음을 선사한다. 바움 펴냄 1만5000원 (031)674-1357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한글만다라 치유명상展

법련사서 12월 5~11일

한글에 담긴 본성이 만다라로 구현된다. 구선 스님은 12월 5~11일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에서 ‘12연기만다라·한글자음만다라’展을 연다. 생명성이 일어나는 변화를 표현한 한글 자음, 다른 생명과 교류하는 수단인 한글 모음이 어울려 우주 법계를 형상화한 만다라로 태어난다.

“본성에서 밝은 성품이 생성되니 ‘ㄱ’이로다. 이로 인해 천지만물이 생겨나니 원·방·각이요 천지인(天地人)이로다. 밝은 성품이 서로 부딪쳐 음양이기가 생겨나니 ‘ㄴ’이로다. 이로 인해 하늘생명·땅생명·인간생명이 생겨나고, 여섯 개의 유상의식이 갖춰지느니라.”

한글 자음 원리를 활용해 개개인이 지닌 생명성을 증장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구선 스님은 “감성, 지성, 영성을 균형 있게 갖춘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한글 만다라가 지향하는 바라고 전한다.

문자의 근본인 언어, 생명은 언어를 통해 스스로의 사상과 의식을 표현하고 교류한다. 스님이 직접 제작한 진본만다라 가운데 ‘12연기만다라’는 최초 생명의 시발인 무명으로부터 우주의 생성원리를 12단계로 나눈다. ‘한글자음만다라’는 12연기 과정 중 행(行)의 원리로서 수행의 방편이다. 스님이 구현한 한글 만다라 법계도는 생멸문(生滅門)의 세간인에게 진여문(眞如門)으로 향하는 한 장의 지도다. 이번 전시에서는 <觀 한글 자음 원리> 출판 기념회와 공개강좌도 함께 진행된다. (070)8104-8145

가연숙 기자

‘유심(惟心)’ 격월간 발행

내년 1월부터, 신인등용제 변경도

만해 스님이 1918년 창간했다가 2001년 8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복간된 계간 문예지 <유심>이 2009년 1월부터 격월간으로 거듭난다.

<유심>은 2008년 겨울호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매 홀수 달에 발행 한다”고 밝혔다. <유심>은 발행주기의 변경과 함께 신인등용제도도 개편했다. 기존의 ‘유심신인문학상’과 ‘유심시조백일장’을 ‘신인작품추천제도’로 통합할 한 것. 신인작품추천제도는 연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문을 열고 시5편 이상과 시조5편 이상, 평론1편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분야에서 역량 있는 신인 작품을 공모해 추천하는 제도다.

매년 훌륭한 작품을 발표해 온 문학인을 선정해 상찬해 온 ‘유심작품상’은 그대로 운영된다. <유심>은 문학 독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www.yousim.co.kr)를 통해 수록 작품을 무료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

한편 <유심> 2008년 겨울호는 김교한 시조시인과 임연태 시인(분지 편집 부국장)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특집과 이근배 김중해 송준영 시인의 ‘시집 깊이 읽기’ 등을 실었다. (02)739-5781

가연숙 기자

‘Nature+Dream+Eternity’展

한전프라자갤러리 11월 30일까지

캔버스 위에 아크릴을 칠하고 같이 문지른다. 생동하는 고운 질감이 연두 빛에 어울려 분홍 빛깔 연꽃이 바람에 조연하다. 연꽃을 통해 정갈한 인간의 마음을 구도해 온 김호연 교수(홍익대 미술대학)는 11월 22~30일까지 서울 한전프라자 갤러리에서 ‘Nature+Dream+Eternity’展을 통해 연꽃과 모란이 선사하는 ‘자연+꿈+영원’을 이야기 한다.

어떤 이념이나 신념에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작가의 유희가 푸르른 허공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그 가운데서 노니는 즐기는 경쾌한 해학과 익살을 물신 전한다. 작가의 자연에 대한 모색은 영역과 소재의 다양성을 넘나드는 자전적이고 소박한 발원이다. (02)2105-8190

가연숙 기자

스님! 병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병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2월 2일 화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기간 : 6주(24시간)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 사항

-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 락 합장 -

자기 최면 특별 수련회

- 주제 : 자기 최면 집중훈련
- 대상 : 유마 최면 연구소 평생회원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16시 ~ 11월 26일 12시
- 장소 : 정음 칠보암 수련관

자기 최면 완성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바랍니다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기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화제의 신간

핵심래정 택일지

365일 매일 한 장씩 한눈에 훑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x6배판/무선제본/436쪽/정가 20,000원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날랐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날이 낳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공개!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종하지 않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비법공개! 602자 일일별도 한눈에 속히 알 수 있게 초사법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 김재택스님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규구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